

- 주요 뉴스: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사상 최고치 경신 9월 빅스텝 가능성 증대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경기침체 상황 아니며 인플레이 안정 노력 필요
 - 유로존 2분기 경제성장률 4.0%로 예상치 상회, 코로나 봉쇄 완화 영향
 - 미국 6월 PCE 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기록. 2분기 고용비용도 급등

- 국제금융시장: 유로존 성장률 개선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42%],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박테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 600 지수는 유로존 2분기 성장률 발표 및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강세
- 환율: 달러화지수는 PCE 물가 급등 및 유로존 금리인상 기대감에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금리인상 정상화 기대 반영
독일은 자국 2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03.4원, +4.9원) 0.4% 상승, 한국 CDS 하락

		7/29일	7/28일	전일대비			7/29일	7/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30.3	4,072.4	1.42%	국채 금리 10y	미국	2.65%	2.68%	-3bp
	유럽	438.29	432.77	1.28%		독일	0.82%	0.83%	-1bp
	중국	3,253.2	3,282.6	-0.89%	CDS 5y	한국	41bp	42bp	-1bp
	일본	27,801	27,815	-0.05%		중국	72bp	77bp	-5bp
	한국	2,451.5	2,435.3	0.67%	위험 지표	EMBI+	-	454	-
달러지수	105.90	106.19	-0.42%	VIX		21.33	22.33	-4.48%	
유로화	1.0220	1.0197	0.23%	WTI유		98.62	96.47	2.28%	
환율	엔화	133.27	134.27	0.74%	원자재	구리	357.4	347.5	2.85%
	위안화	6.7445	6.7473	0.04%		금	1,765.9	1,755.8	0.58%
	원화	1,299.1	1,296.1	-0.23%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사상 최고치 경신. 9월 빅스텝 가능성 증대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9%로 전월(8.6%)과 예상치(8.7%)를 모두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비 39.7% 급등. 근원 CPI도 4.0%로 전월(3.7%)과 예상치(3.9%)를 상회
-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급등 소식에 오는 9월 ECB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 Oxford Economics는 단기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수준이어서 50bp 금리 인상에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
- Rabobank는 러시아 가스 공급 등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크게 좌우되겠으나, 어느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경기침체 상황 아니며 인플레이션 안정 노력 필요

- 보스틱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한 고용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침체 상황이 아니라고 밝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다만 향후 두 달간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부언
- 이날 앨리스 아우젠바흐 JP모건 글로벌 시장전략가 역시 미국 고용시장 안정을 근거로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설명. 그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실질 소비에 나서고 있는데다 신용카드부채 등이 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경기가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

■ 유로존 2분기 경제성장률 4.0%로 예상치 상회, 코로나 봉쇄 완화 영향

- 유로존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4.0%, 전분기비 0.7% 상승. 러우 전쟁으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해 관광 및 서비스업 경기가 반등
- 특히 스웨덴(1.4%), 스페인(1.1%), 이탈리아(1.0%) 등이 전분기비 높은 성장세 기록. 반면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의 성장률은 0.0%로 전망치(0.1%)를 하회

- 다만, 버트 콜린 ING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성장 가속화가 기저효과에 크게 기인한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요 약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다시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

■ 미국 6월 PCE 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기록. 2분기 고용비용도 급등

- 6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동월비 6.8% 상승했으며, 전년비로는 1.0% 올라 1982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 근원 PCE는 전년비 4.8% 상승
- 6월 개인소득은 전월비 0.6%, 가처분소득은 0.7%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가처분소득은 전월비 0.3% 감소. Morning Consult는 소비자 지출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 또한 2분기 고용비용지수(ECI)도 전기비 1.3% 상승해 예상치 1.2%를 상회. Indeed의 Nick Bunker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고용주들의 경쟁이 치열해 당분간 고임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일본, 반도체 연구 위한 공동 허브 설립 결정

-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미일 양국이 핵심 부품 공급의 안정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해당 연구센터는 금년 말 출범할 예정이며, 특히 파운드리(제조) 공급망 확보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양국은 모두 수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방침

■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선박에 곡물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 재개 기대

-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르노모르스크 항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가 17척의 튀르키예 선박에 곡물 선적을 마쳤으며, 이번 주말 내로 수출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7/29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시카고 PMI: 52.1, 6월(56.0), 예상치(55.0)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51.5, 5월(51.1), 예상치(51.1)
- 미국 6월 개인소득(전월비): 0.0%, 5월(0.5%), 예상치(0.0%)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